

“518개 닥종이 인형으로 5월 공동체·나눔 알릴 것”



김유경 한지공예작가가 2017년부터 제작해 온 닥종이인형.

23일 오후 광주 일동중학교에서는 인형 만들기 가 한창이었다. 김유경(52) 한지공예작가와 재학생 23명, 교직원 5명 등이 함께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닥종이 인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것. 이번 프로젝트는 5·18을 겪지 않은 일동중 학생들이 공예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5·18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광주정신을 배운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김 작가는 현재 학교를 비롯해 개인동아리, 모임 등을 찾아가 광주시민과 함께 5·18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오월여성회 회원, 주부, 직장인, 소년원 아이들 등 518명의 광주 시민과 인형을 만들어 5·18 정신을 당시 상황을 겪지 않은 세대와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80년 5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김 작가는 “5·18이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쌀·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주먹밥 등 공동체와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따뜻한 모습을 닥종이로 표현함으로써 5·18을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유경 작가

대학 졸업 후 ‘김유경 공방’을 운영하던 김 작가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박물관, 문화센터 등에서 공예강의를 했다. 특히, 닥종이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닥종이 인형으로 말하는 희망의 5·18’ 프로젝트를 진행,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작가의 활동은 인형제작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민들의 손으로 5·18과 광주정신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장, 한장은 약하고 여러장이 모이면 나무보다 더 강해지는 특징을 가진 한지는 강인함과 대동단결의 광주정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이기도 하다.

“사실 시민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

김유경 한지공예작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300여점 제작 일동중 학생, 5월 단체 등 참여...518명 완성 후 전국 전시회 “5월 정신 공유하며 인형 제작 함께할 사람들 기다려”

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는데, 참여자를 모집하는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니 시민군을 시작으로 트럭, 탱크 등을 약 300여점을 완성했어요. 지금은 80년 5월 당시 거리에 나왔던 평범한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김 씨는 2014년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학교 15곳에서 한지공예 수업을 하기도 했다. 같은해 캐나다 버나비 시정에 한지 인형 작품을 전시했고, 버나비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2017년에는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세계 여성회와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김 작가의 5·18 닥종이 인형 전시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밖에도 김 작가는 고무줄 놀이, 딱지 치기, 말뚝박기 인형 20점과 뒤주, 소반, 접시 등 한지 생활 공예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이어갔다.

김 작가는 518명이 제작한 인형이 완성되면,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그는 “5·18인형을 만들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내고 일었다”며 “518명이 완성될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한 일동중 김홍식 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은 학생들이 진정한 5·18 광주 정신의 의미를 느끼고 배워서 제대로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작가는 1991년 서울예술대학 미술대학 졸업 후 미술관에서 일했다. 2014년 광주문화재단 국제교류 작가와 2017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작가로 선정됐으며, 현재 ‘폼’ 한국문화교류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유경 한지공예작가와 일동중 학생, 교직원 등이 한지공예로 5·18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봄여름가을겨울’ 아름다운 풍경들

조문호 개인전, 28일까지 이음갤러리

조문호 작가 네번째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 이음갤러리(북구 중흥로 239)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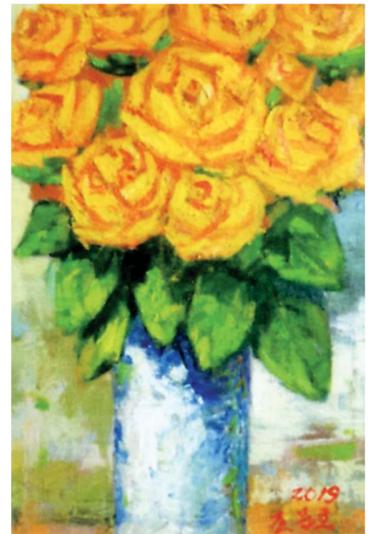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봄여름가을겨울 다채로운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자작나무와 어우러진 초록빛 싯과 하얀 눈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경 등을 만날 수 있으며 화사한 장미꽃과 여름의 상징인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도 화폭에 옮겼다. 또 군침을 돌게하는 석류와 모과를 비롯해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가마솥’ 등의 작품도 관람객들을 만난다.

국립서울농학교를 거쳐 호남대 예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조 작가는 서울과 충남 청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세계미술대전, 한국화화 조영 특별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한국미협,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청미회, 노크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추천작가다.

오프닝 행사는 26일 오후 4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

‘영상 예술로 안부를 묻다’

광주시·취안저우시·요코하마시, 교류 7년 특별 이벤트

2014년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가 교류 7년째를 맞아 영상예술로 안부를 묻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영상 예술로 안부를 묻다’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의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도시별 홍보영상과 함께 3개 도시 문화국장들이 안부를 묻고, 도시별 지역 특색을 살린 예술작품을 통해 공감의 폭을 넓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중·일 3개 도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기획 등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번 이벤트에서 광주는 무등산 ‘주상절리’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며 취안저우는 전통 희곡과 군무, 요코하마는 작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서 공연했던 민속춤과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vh78msfr1w>)을 통해 전체 21개



문화도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2012년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해 시작돼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대표하는 1급 1도시를 선정해 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21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LOTTE CINEMA | 중창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3관 내가 죽던 날
4관 도굴
5관 도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마리 퀴리
6관 도굴, 런
9관 런

7관 씨네커튼 런, 내이스 걸리코 유 봉쇄수원 카르투시, 덤보
8관 씨네커튼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텍스 콜렉터 김경 오브 헤브: 디렉터스 컷 요가화원: 죽음의 쿤달리니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La Boheme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